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 시장동향 및 전망

건설시장

(25년 4분기) 건설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건설기성과 착공의 감소세가 지속
(26년 1분기) 경기부양 기대와 물량절벽 우려가 상존하며, 소폭 회복세 기대

전문건설시장

(25년 4분기) 계약액 감소가 지속되며 상대적으로 하도급 계약 감소세가 심화
(26년 1분기) 업황 회복이 쉽지 않으며, 하도급공사 부진이 지속될 전망

주택시장

(25년 4분기) 전국·서울 주택가격 상승 흐름 지속
(26년 1분기) 주택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상승 흐름 전망

▣ 이슈 진단

1. 건설경기 반등시기와 양상 전망

2026년 건설경기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의 속도와 폭은 제한적
향후 건설시장은 총량 측면에서 L자형이 예상되며, 배분 측면에서는 양극화 예상

2. 월세거래 증가와 영향 점검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나며 월세거래건수 증가 추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중·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 존재

3. 2026년 E-9 외국인력 도입 계획 및 시사점

2026년 E-9 외국인력 쿠터를 8만명으로 결정하고 건설업에 2,000명 배정
현장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족한 수준으로 합법적 외국인력의 확대 필요

시장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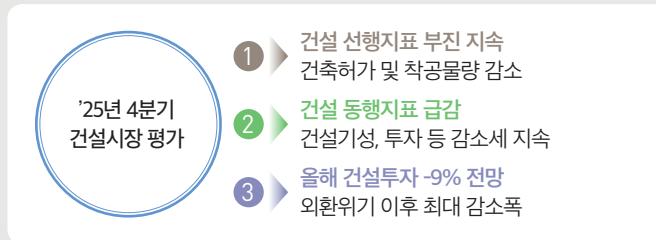
거시 경제 여건

- ▶ 한국은행은 수정 전망(2025.11.27.)을 통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을 1.0%로 제시
- 세계경제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확장적 정책기조와 AI투자 호조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국내는 확장재정과 함께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상황
 - 그러나 건설투자 침체 기간과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경제성장을 1%포인트 이상 낮추고 있는 실정
- ▶ 美관세 영향에도 하반기 이후 IT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예상에 부합하는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 다만, AI성장세 지속 기대감과 과잉투자 우려가 혼재하며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구 분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경제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무역갈등 추가 완화• 반도체 및 AI 경기 개선 기대• 방한 관광객수 증가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갈등 재격화 및 통상환경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비IT부문 부진 심화
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환율 지속• 농축수산물가격 강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원유 초과 공급•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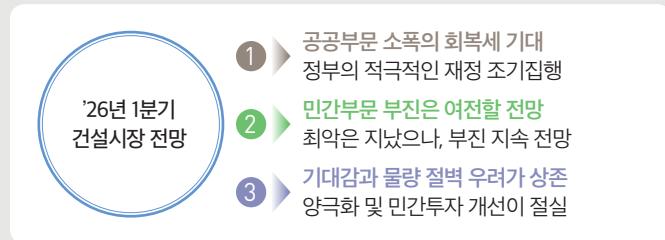
건설 시장

건설시장 2025년 4/4분기 동향



- ▶ 건설시장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기성과 건축착공 등 주요 지표 감소세가 지속

건설시장 2026년 1/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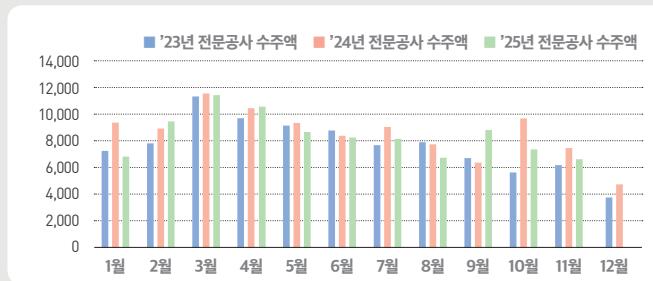
- ▶ 경기부양 기대감과 물량 절벽 우려가 상존하며, 공공 중심으로 소폭의 회복세 기대

전문건설 & 생산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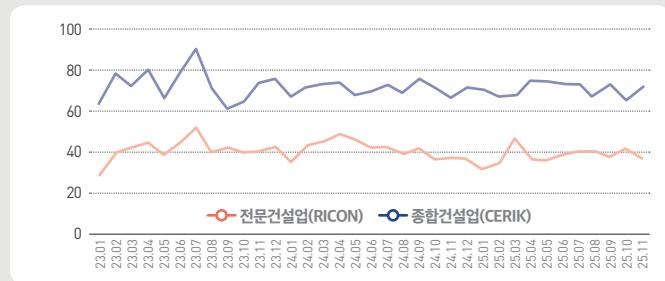
-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감소했으며, 하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 전문건설업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하도급공사 계약액이 전년동월대비 20% 이상 감소하면서 부진을 주도
- ▶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최근 3년과 비교해도 최저 수준

전문건설업 계약액 추정치

(단위: 십억 원)



종합 및 전문건설업 BSI 추이



주택시장

주택시장 2025년 4/4분기 동향

주택가격	전국	소폭 상승
	수도권	완만한 반등
	지방	하락 압력 속 보합
	서울	선호지역 중심 상승

- ▶ 전국 평균 상승폭은 제한적인 가운데, 서울 중심의 가격 상승 흐름

주택시장 2026년 1/4분기 전망

소득대비 주택가격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부담 높은 수준 고착
전세가격	전세가격 상승 압력 지속
종 합	매매·전세가격 점진적 상승 흐름

- ▶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점진적 상승 흐름 지속 전망

건설시장

“ 2025년 4/4분기 건설시장: 건설시장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기성과 건축착공 등 주요 건설지표의 감소세가 지속 ”

• 2025년 10월까지 발표된 건설지표는 뚜렷한 반등없이 위축세가 지속되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

- 금액기준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작년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는 2.2% 증가
- 물량기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 10월까지도 11.8% 감소
- 물량기준 선행/동행지표인 건축착공면적은 기저효과로 작년 18.6% 증가했으나, 올해 10월까지는 16.3% 감소
- 금액기준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작년 2분기부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10월까지 17.6% 급감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아파트 분양물량은 작년 소폭 증가했으나, 올해 10월까지 16.1만호로 전년동기대비 3.6만호 감소

• 2025년 건설경기는 침체를 거듭하며 건설투자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

- 한국은행과 KDI가 11월 수정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는 각각 -8.7%, -9.1%로 이는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저치
-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이어진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은 통계 작성 이래 최초

주요 건설지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 만호)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0월 누계
건설수주(경상)	-18.3	-10.4	20.7	26.8	9.7	10.9	1.1	-5.1	29.3	-41.6	2.2
건설기성(불변)	7.8	4.0	-3.1	-9.1	-9.7	-4.7	-21.2	-17.4	-11.7	-24.6	-17.6
건축허가면적(연면적)	-25.6	-17.2	-16.4	-9.9	8.4	-9.2	-23.3	-8.7	-5.6	-3.1	-11.8
건축착공면적(연면적)	-31.7	15.2	33.1	40.3	-4.2	18.6	-30.0	-5.6	-4.2	-39.8	-16.3
아파트 분양물량(만호)	21.1	5.8	5.8	5.7	7.7	25.0	2.3	4.7	7.4	1.7	16.1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 2026년 1/4분기 건설시장: 경기부양 기대감과 물량 절벽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공공 중심으로 소폭의 회복세 기대 ”

• 내년 1분기 건설경기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동행지표를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

- 내년 1분기 건설경기는 공공·토목부문의 재정 조기집행이 예상되어 공공 중심으로 소폭의 회복세 기대
- 민간·건축부문의 부진은 최악의 국면은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시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
- 금리와 부동산PF 등 외부환경 요인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25년 착공물량 감소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을 중심으로 건축경기가 매우 부진하다는 점에서 민간 건설경기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2026년 건설시장은 긍정적인 요인에 비해 부정적인 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건설투자는 제한적 반등에 그칠 전망

- 2026년 건설투자는 2025년 대비 약 2% 증가하여 26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건설 선행지표(수주, 허가, 착공 등)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점에서 반등폭은 2% 전후로 크지 않을 전망
- 여기에 건설물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지방 건설경기의 회복 가능성성이 크지 않은 점도 제한적 반등의 원인
- 민간 건축시장의 회복 여부와 지방경기 활성화가 건설경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

• 타 기관의 2026년 건설투자 전망치는 +2.2% ~ +3.2%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내년 건설경기 회복의 요인이 기저효과와 정부투자 증가 외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으로 그만큼 건설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

2026년 주요 기관별 건설투자 전망

구 분	2024년	2024년			2026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회예산정책처(2025.09)	-3.3%	-12.2%	-4.3%	-8.2%	+3.2%
KDI(2025.11)	-3.3%	-12.2%	-6.0%	-9.1%	+2.2%
한국은행(2025.11)	-3.3%	-12.2%	-5.3%	-8.7%	+2.6%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5.11)	-3.3%	-12.2%	-5.8%	-9.0%	+2.0%

자료: 기관별 전망 자료

전문건설시장

“202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감소했으며, 하도급공사 부진이 심화”

-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25년 10월 7.4조원, 11월 6.6조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및 최근 3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
 - 특히, 원도급에 비해 하도급공사 계약액이 전년동월대비 20% 이상 감소하면서 전문건설업 부진을 주도
 - 건설경기 전반에 크게 부진한 가운데 신규 착공물량이 줄어들면서 전문건설업 계약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
 - 미분양 물량 및 정부주도의 부실PF에 대한 구조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으로 유의미한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2025년 3분기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잠정)

시기	구분	추정 수주액(십억 원)	전년 동월비(%)	과거 3년 동월비(%)
'25년 10월	전문건설업 전체	7,440	-23.4	-1.9
	원도급공사	2,908	-7.5	+12.6
	하도급공사	4,533	-31.0	-9.4
'25년 11월	전문건설업 전체	6,644	-10.6	-1.5
	원도급공사	2,525	-4.1	+10.7
	하도급공사	4,119	-14.1	-7.8

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실적('25.10~'25.11)을 기반으로 추정

자료: 전문건설공제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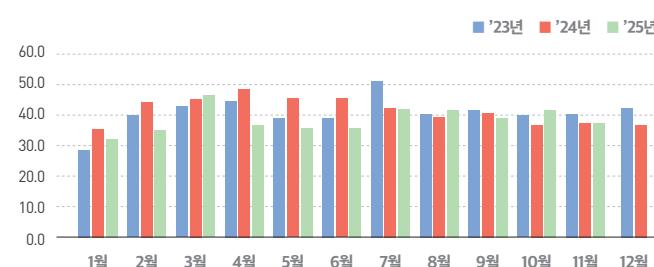
“2026년 1/4분기 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며, 하도급공사 부진이 지속될 전망”

- 전반적인 건설경기 흐름에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 전문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내년 1분기에도 가시적인 업황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전체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전문건설업 업황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전문건설업 선행과 중간 공종은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후행공종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 도급별로는 원도급 계약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기 집행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세가 예상되는 반면, 하도급 계약액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한편, 건설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2025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체감도(BSI)는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이며, 최근 3년과 비교해도 최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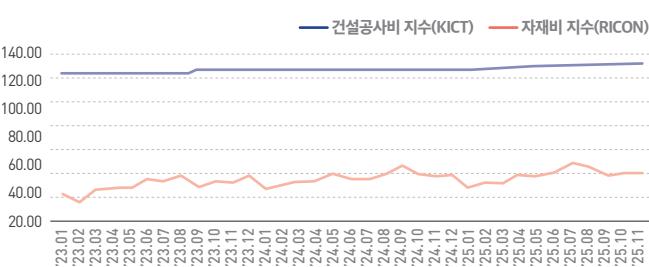
- 전문건설업체의 4분기 건설경기 체감도(BSI)는 점차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
 - 발주물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되며, 업계에서는 대업종화로 인한 단일공종 공사규모의 축소, 공사수주 단가의 과도한 하락, 현장안전 강화로 인한 작업시간 감소, 노란봉투법 등 노조 관련 현안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 비교(최근 3년)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공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 비교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월별 사전 전망 및 실제 평가치

구분	'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전망	26.3	38.2	47.0	43.9	41.4	39.1	43.1	48.0	46.0	39.6	36.0
월별 평가	32.1	35.0	46.5	36.8	35.8	39.4	41.9	41.6	41.6	41.5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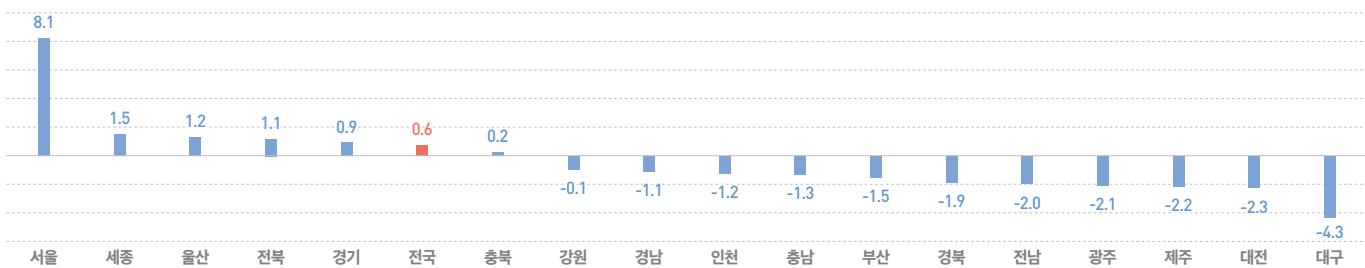
주택시장

“2025년 4/4분기 주택시장: 전국 주택가격의 제한적 상승세 속, 서울 중심의 차별화된 가격상승 기조 지속”

- **(주택가격)** 2025년 지역별 주택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서울과 비서울 간 주택가격 상승폭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
 - 서울의 경우, 전년 대비 약 8.1% 상승하며, 비서울 지역과 비교해 두드러지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
 - 전국 평균 주택가격지수 변동률은 0.6% 수준에 그쳤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가 전년 대비 4.3% 하락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
 -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 외에도 세종, 울산, 전북, 경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의 경우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전년 대비 주택가격지수가 상승한 지역으로 분류 가능
 - 반면, 다수 지방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또는 정체 흐름이 지속되며 지역 간 가격 흐름의 차별화가 뚜렷한 모습
 - 종합하면, 2025년 주택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 흐름이 두드러진 가운데, 비서울 지역과의 가격 격차가 한층 확대된 한 해로 평가 가능

2024년 대비 2025년 지역별 주택가격지수 변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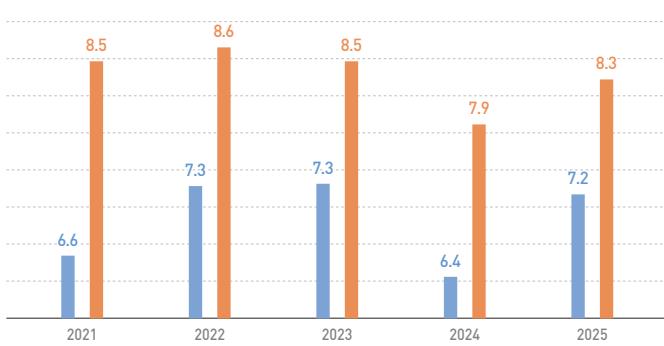
* 자료: 한국부동산원

** 주: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였으며, 2024년 11월 기준 지수와 2025년 11월 기준 지수를 비교

“2026년 1/4분기 주택시장: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점진적 상승 흐름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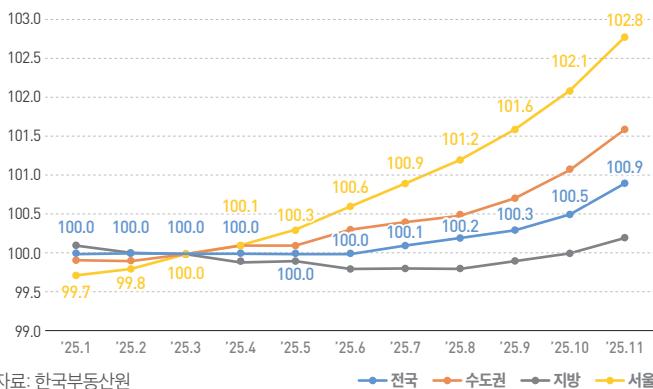
- **(소득대비 주택가격 PIR)** 2024년 서울의 PIR은 7.9로 소득을 전액 저축할 시 내 집 마련에 약 8년이 소요되는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8.3으로 높아져 주거비 부담이 확대된 모습
 - 2025년에는 전국과 서울 모두 PIR 지수가 상승하며, 소득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가격 부담 수준이 확대
 - 이러한 PIR 지수의 상승은 최근 주택가격이 소득 증가 속도를 상회하며 반등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
 - 이에 따라 2026년 1/4분기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조정보다는 완만한 반등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 **(아파트 전세가격)** 2025년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난 한 해
 - 특히 6.27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10.15 대책으로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전세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 전세 물량까지 감소하는 흐름
 - 전세 물량 감소와 맞물려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4분기에도 임대차 시장 전반에 걸친 가격상승 압력이 이어질 전망

전국·서울 소득대비 주택가격(PIR)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2025.3 = 100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건설·주택시장 이슈 진단

“이슈 1. 건설경기 반등시기와 양상 전망”

- **건설경기 주요 지표의 위축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저점 통과 시점 및 회복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
 - 장기 건설투자 변화 양상을 통해 건설경기 침체 상황을 살펴보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의 회복 가능성을 점검
- **현재 건설산업은 1990년대 이후 세 번째 구조적 조정기(Structural Adjustment)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 1차 침체는 외환위기, 2차 침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요 요인으로 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영향
 - 이번 3차 침체는 경제구조, 정책여건, 투자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 **이번 건설산업 장기침체는 경제 구조(성장률·발전단계), 정책 환경(재정·제도), 투자 여건(금리·부동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건설자본스톡, 소득수준, 도시화율, 경제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숙기에 진입
 - 여기에 부정적 인구구조와 심화되는 지역 쇠퇴, 정부 재정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볼 때,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기대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
 - 따라서 건설경기는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지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또한, 현재의 침체 국면이 진정되고 상승기조로 전환되더라도, 회복의 속도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장기침체 이후 회복 양상도 1차는 V자로 회복했다면 2차는 U자로 장기 횡보 이후 회복하였으며, 이번 3차 침체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 향후 건설시장은 시장의 총량 측면에서 L자형 또는 나이키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총량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K자형)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즉, 장기 저성장에 따라 평균 건설산업 성장률은 0~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그 안에서 부문별·지역별·기업별 격차는 더욱 양극화될 것으로 판단
 - 특히, 지방은 구조적으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이 불리하여 지방 건설경기 침체 및 양극화가 전체 건설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1991-2025)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저성장 국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숙’으로 전환**
 -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의 고효율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디지털 전환(DX)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시급
 -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전통 시장을 넘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O&M(유지보수·운용), 친환경 인프라, 고부가가치 해외시장 진출 등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검토
 - 또한, ‘기획-설계-금융-시공-운영’에 이르는 건설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
-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의 경착륙 방지를 위한 유동성 지원 및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Two-Track’ 정책 전략 마련이 필수적**

“이슈 2. 월세거래 증가와 영향 점검”

•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월세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추이를 점검

- 최근 6.27 대책(전세대출 규제 강화) 및 10.15 대책(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시장 내 신규 및 기존 전세 매물의 잠김 현상이 심화
- 수급 불균형에 따라 전세가격이 추가 반등하며,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상황
-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는 세입자를 중심으로 전세 선호가 약화되고 월세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
- 이에 2024년과 2025년의 월세거래건수 비교를 통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월세거래 증가 흐름을 점검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년(1~11월) 월세 거래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대부분의 기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임대차 시장 내 월세 거래 확대 기조가 견고함을 시사

- 2022년 하반기 이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른바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일부 전세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 형성
-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전세제도는 점차 축소되는 반면, 월세 비중은 확대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
- 전세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수요층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향후 중·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존재

‘24년 대비 ’25년 월세거래건수 증감 추이

단위: 건, %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25.12.20 자료 다운로드 기준)

■ 2024년 ■ 2025년 ■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이슈 3. 2026년 E-9 외국인력 도입 계획 및 시사점”

• 정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

-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업종별 도입 쿼터 7만명 +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배정분 1만명)
- 경기전망, 고용여건,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5만명 감소
 - * '25.11월말 기준 48,668명 발급허가, ('25) 13만명 → ('26) 8만명 (-5만명, -38.5%)
- 건설업의 경우에 '26년 E-9 외국인력은 총 2,000명으로 '25년과 동일

2026년 E-9 외국인력 업종별 쿼터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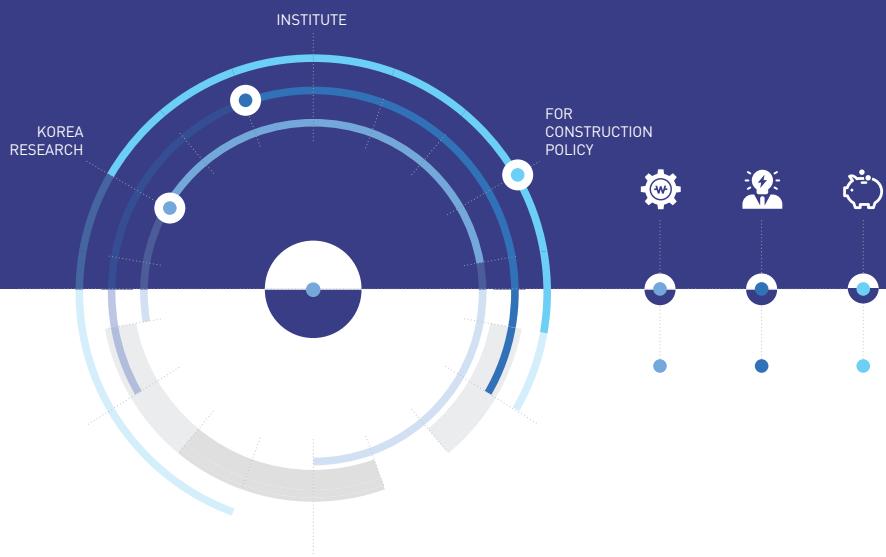
(단위: 명)

총 계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탄력배정분
80,000	50,000	10,000	2,000	7,000	1,000	10,000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22),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전망한 올해 인력 부족 규모가 약 15만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00명의 도입 쿼터는 부족 인원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 합법적 외국인력(E-9)의 쿼터 부족은 결국 현장의 불법체류 인력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검증되지 않은 인력 투입은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모순
-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합법적 외국인력의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발행일 2025. 12
발행인 김희수
발행위원 박선구, 이은형, 정대운, 고하희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07071
TEL 02-3284-2600 | FAX 02-3284-2620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